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- (한국)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: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사례
- (일본) 태풍 10호와 주민 전원대피: 휴가시(日向市)를 사례로
- (독일)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 - 사회통합의회
- (미국) 캘리포니아 주(州) “객실키 프로젝트(Project Roomkey)”: COVID-19에 따른 노숙자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정책

태풍 10호와 주민 전원대피: 휴가시(日向市)를 사례로

개요

- 태풍 10호의 접근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상청이 지자체의 대피권고를 강조
- 주민 전원대피에 관한 지자체의 대책회의와 재해발생 전 대피의 주요 정보의 홍보
- 코로나 감염대책과 함께 다양한 대피 방법의 주지와 숙지를 지자체와 시민이 실천

「특별경보급」과 「조기의 대피로 생명을 지키는 행동」

- 2020년 9월 2일, 일본 기상청은 태풍 제10호가 향후특별경보급(중심기압 930hPa 이하, 최대 풍속 50m/s이상)으로 발달하여 6일부터 7일에 걸쳐 아미미 지방과 서일본지역에 접근 또는 상륙할 우려에 관해 보도함
- 태풍의 예보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, 광범위한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에 관해 보도
- 기상청이 발표하는 최신 태풍정보에 유의하면서 향후 각 지방 기상대가 발표하는 조기 주의정보 및 경보·주의보 등 기상정보에 유의하고, 자신의 생명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함
- 태풍 10호의 접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, 일본정부는 9월 4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베총리는 관계 각료들에게 신속하고 알기 쉬운 정보 발신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함
- 국민에게는 빠른 대피에 유의하여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촉구함
- 경찰, 소방, 해상보안청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대도 구조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약 22,000명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함

| 표 1 | 경계레벨과의 관계

호우·홍수	
■ 호우특별경보	경계레벨5
■ 토사재해경계정보	경계레벨4
■ 호우경보·홍수경보	경계레벨3
■ 호우주의보·홍수주의보	경계레벨2

- 각지에 충분한 피난처를 확보하고,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책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태세의 준비를 지시함
- 국민에게 지자체의 피난정보에 따라 조기의 대피에 유의하여 방심하지 말고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취하도록 호소함

【 표 2 】 경계레벨과의 관계각 정보에 따라 취해야할 행동과 경계레벨

호우·홍수	취해야할 행동 수칙	경계레벨
■ 호우특별경보	- 재해가 이미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-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권고	경계레벨5
■ 토사재해경계정보	- 지자체로부터의 대피권고에 유의 - 대피권고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대피 판단	경계레벨4
■ 호우경보·홍수경보	- 지자체로부터 대피준비, 고령자 등 대피개시 발령에 유의 - 고령자는 스스로 대피 판단	경계레벨3
■ 호우주의보·홍수주의보	- 재해정보지도에서 재해위험구역, 대피소, 대피경로를 확인	경계레벨2

경계레벨4 「대피권고」와 주민 전원대피

- 태풍 10호 접근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
 - 휴가시의 토야시장(十屋幸平)은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피난 정보의 발령 및 대피소 개설
 - 대피소에서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의 철저, 전시청 체제의 정보 공유 및 대응 등을 지시
-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고바야시시는 태풍의 접근에 따라 호우의 우려가 고조되어, 2020년 9월 6일, 오전 8시 시내 전역에 피난 권고를 발령함
- 대피 대상
 - ▽ 휴가시 25,406 가구, 59,537명, ▽ 코바야시시 11,662 가구, 43,374명
 - 5 단계의 경계레벨 중 레벨 4에 해당하며 신속히 위험한 장소로부터 전원 철수를 촉구함



【 그림 1 】 휴가시의 재해대책본부의 회의 상황

- 대피 정보 발령시의 상황과 취해야 할 행동
 - 경계 레벨3) 대피 준비·고령자 등 대피개시
 - 인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
 - 대피시 시간이 소요되며 고령자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대피를 시작해야 할 단계
 - 대피시 시간이 소요되며 지원이 필요한 자는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
 - 가족등은원이 필요한 사람의 대피를 지원
 -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자는 가족과 연락, 비상시 소지품의 준비 등 피난 준비 개시
 - 경계 레벨4) 대피 권고
 - 인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
 - 전주민이 대피를 시작해야 할 단계
 - 전주민은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
 - 경계 레벨5) 대피 지시(긴급)
 - 인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상태
 -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
 - 전주민의 대피완료 단계
 - 아직 대피하지 않은 주민은 즉시 대피해야 함
 - 대피 할 상황이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동을 취함



경계 레벨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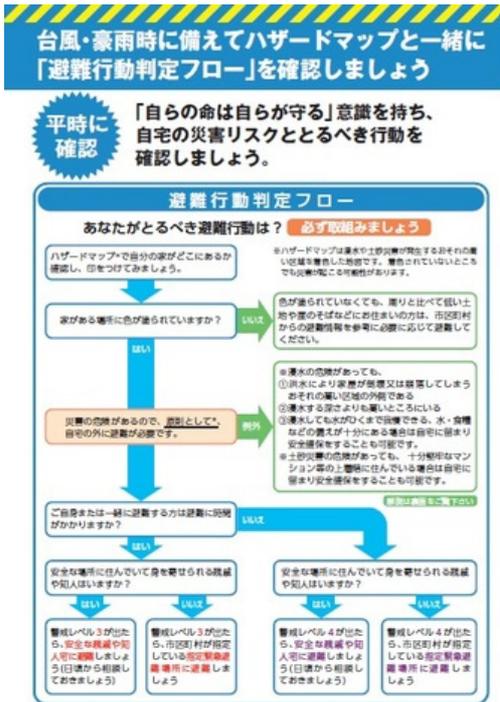
경계 레벨4)



경계 레벨5)

- 대피의 사전준비
 - 재해시 사전에 대피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함
 - 대피 장소는 학교와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의 친척·지인의 집에 대피하는 등 여러 가지 대피방법을 준비함

- 재해정보 지도를 바탕으로 자택 등이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
 - 대피소에 도착하여 자가용에 머무는 것도 가능
 - **고층으로의 수직대피도 고려**



| 그림 2 | 대피 판단의 흐름 및 참고 정보

避難行動判定フローの参考情報

ハザードマップの見方 **必ず確認してください**

ハザードマップの見方 **もっと詳しく知りたい人向け**

1. 避難レベル3や4が出たら、危険な場所から避難しましょう

2. 「避難」とは「避」を「難」けることです. 安全な場所にいる人は、避難場所に行く必要はありません

3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4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5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6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7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8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9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10. 避難先は小中学校・公民館だけではなく、安全な親戚・知人宅に避難することも考えてみましょう

- 대피소로 이동시 지참할 물품
 - 시청에서 준비 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한계가 있음
 -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체온계 등은 상비용품과 함께 만일의 경우를 위해 준비함
 - 마스크(수건 등), 알코올 소독액(물티슈 등), 체온계, 침구(담요 등), 방한복, 식량·음료수, 휴대용 라디오, 휴대용 배터리, 복용중의 약
- 대피소에서의 감염병 대책
 - 단수 등의 영향이 없을 경우, 자주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
 - 충분한 환기 및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대피자들 간의 공간을 확보 협조
 -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시가 별도로 준비한 대피장소로 이동
 - 대피소로 이동전 대피자 카드를 기입하여 지참
 - 대피자 카드 기입 내용: 입소 및 퇴소 시각,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거주 지자체명,

세대자명, 이동수단, 현재 체온, 2주간의 체온이상 여부, 호흡기 질환상태, 동거인의 상태, 감염확대 지역으로의 이동 이력, 밀접 접촉 여부 등

避難者カード	
入所 / 時 分	退所 / 時 分
氏名	生年月日: (歳) 電話番号:
住所	
自治会名(区名)	
世帯代表者名	
交通手段	自家用車 徒歩 送迎(タクシー等) その他
①現在の体温	℃
②2週間以内に37.5℃以上の発熱があった。	はい・いいえ
③2週間以内に息苦しさや強いだるさがある。	はい・いいえ
④2週間以内に咳・くしゃみ・鼻水・のどの痛みなどが続く症状がある。	はい・いいえ
⑤同居している方に、2週間以内に①②③の症状がある。	はい・いいえ
⑥2週間以内に感染症拡大地域や海外への移動歴がある。	はい・いいえ
⑦同居している方に、2週間以内に感染症拡大地域や海外への移動歴がある。	はい・いいえ
⑧既感染者の濃厚接触者であり、健康観察中である。	はい・いいえ
⑨次に該当する場合は○をつけてください。	負傷者・要介護者・妊産婦
⑩安否確認があった際この情報を使用することに、	同意する・同意しない

| 그림 3 | 대피자 카드

기상예보의 부정확성과 대피의 염려보다는 「안심」의 선택

- 2020년 9월 6일, 일본 기상청은 태풍 10호의 세력이 다소 약화되어, 가고시마현에 특별경보를 발표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발표함
- 기상청의 나카모토 예보과장(中本能久)은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강한 태풍임을 강조 - 2019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태풍 15호와 19호보다 강한 세력을 지닌 채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함
- 후쿠오카 기상대의 벳푸(別府寿男) 방재조정관은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지적. 그러나 특별경보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결코 경계를 해제할 태풍이 아니었다고 강조함 - 경계의 호소에 따른 피난 및 사전준비에 따라, 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평가함
- 휴고시의 시민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기의 대피를 실시하였으며 카고시마현의 토시마村에서 카고시마시로 대피한 시민은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

시사점

- 필자는 동경도의 카츠시카구의 광역대피를 관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대피권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
 - 재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주민들은 대피에 있어 주저함
 - 또한 수직대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
 - 따라서 중앙정부 및 기상청의 대피권고와 지자체의 정보에 따른 대피 강조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대피 행동으로 이어짐
- 작금의 예상을 초월하는 태풍의 발생과 토사붕괴, 호우는 기존의 재해대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.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전달 방식과 대피 방법의 홍보가 중요함
- 지자체 주민 전원의 대피에 따라 재해 피해의 경감으로 이어짐
-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는 대피와 감염대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뉴얼을 작성, 실천하였음
- 대피지역의 피해에 따른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은 안전과 안심을 중시하여 사전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음

자료출처

- 니혼테레비 <https://www.news24.jp/articles/2020/09/29/07731061.html>
- 산케이신문 <https://www.sankei.com/affairs/news/200906/afr2009060015-n1.html>
- 서일본신문 <https://www.nishinippon.co.jp/item/n/649673/>
- NHK <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00904/k10012600601000.html>
- NHK <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00906/k10012603141000.html>
- 일본 기상청 <https://www.jma.go.jp/jma/press/2009/02a/202009021100.html>
- 휴가시청 <http://www.hyugacity.jp/>



배 윤 통신원
(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)